

수자원관리,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차대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생태팀

Water Resources Management, What Is Our Alternative Plan?

Cha, Dea-Hyun

Landscaping and Eco-engineering Service Team,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1. 머리말

얼마 전 이례적인 장맛비로 엄청난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례적인 것은 7월에 장마가 밀어 닥쳤고 중국지역의 태풍과 '태백산맥' 효과가 겹치면서 그 피해의 규모가 다른 해보다 엄청나게 컸다.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지구 온난화를 그 주범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연 평균 1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사고나 화재 등의 피해액보다 각각 5배와 12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을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1,200~1,400mm에 이르는 다우지역에 속하며, 강수량의 계절적인 편중이 심하여 연강수량의 70%가 6~9월인 4개월 동안에 집중되어 있다. 강수형태는 불규칙적이며, 강우강도가 큰 집중호우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산지가 많은 지형상 하천 유량의 차이가 매우 크다. 외국의 큰 강은 하상계수가 10:1 안팎이거나 10~30:1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들은 이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하천 유량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이렇다보니 물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조절이 어렵고, 가뭄이 계속되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물 관리 문제는 이래저래 고민인 것이다.

이번 장마철 수해로 인해 물관리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다. 최근 수십년간의 기상데이터를 기초로 한 다양한 논리들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금방이라도 해결책이 있을 듯하다. 당장이라도 시행으로 옮기고 싶은 좋은 이론들이 많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하루 강수량이 80mm 이상인 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하천폭과 댐의 용량은 거의 변화가 없어 수해를 가중시켰다는 이론, 빗물을 분산 저장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 습지 조성으로 홍수 조절을 하자는 이론, 기존 댐의 운영 부실로 수해를 키웠다는 이론, 환경보호 논리에 치수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론 등 많은 이론들이 일간지와 메스컴을 통해 제기되었다. 본 기고에서는 위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대적 대안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

고자 한다.

II. 본론

1. 수자원관리의 중심-댐

지구에서 순환하는 물 가운데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하천수이다. 모든 국가나 민족들이 그 지역을 흐르는 하천의 물을 이용하여 삶의 터전을 가꾸고 그들의 고유의 문화를 계승시켜 왔다. 그러나 하천 물의 양은 지역별로 다르고, 계절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중 강우 분포가 편중되어 있어, 6~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60~70% 정도가 내린다. 또한 하천의 기물기가 매우 급하여 단시간에 많은 양의 물이 모여 들었다가 곧 바로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육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다. 정체되어 있는 시간과 저류되는 양을 조절해야 하천 상·하류의 홍수를 막을 수 있고, 하천수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200여 개의 댐과 16,000여 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있다. 이 가운데 홍수 관리, 용수 공급, 전력 생산 등의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는 다목적댐은 15개 뿐이다. 저수용량으로 볼 때 15개의 다목적댐이 전체 댐의 저수량 6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다목적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금번 집중 호우때 한강 수계의 댐 중 충주댐 치수능력 사례를 살펴보자. 충주댐 유역에는 7월 10일부터 18일 사이에 602mm라는 기록적인 강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충주댐에는 설계홍수량(500년 빈도, 초당 18,000톤)보다 큰 1,000년 빈도의 초당 22,650톤이 유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초당 9000톤 정도만 억제 방류함으로써 하천수위를 저하(여주 3.05m, 인도교 2.24m)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하류지역의 대규모 홍수를 막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하류지역인 수도권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도 고마운 댐이지만 상류지역인 단양지역은 댐 수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는 충주댐이 남한강의 유일한 홍수조절능력을 갖춘 댐으로서 홍수조절기능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댐 건설 논란의 핵심이기도 하다.

북한강 유역의 여러 댐들에 의한 분산된 홍수조절 역할에 비해 충주댐 홍수조절 수행의 어려움은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금강 수계의 대청댐의 경우,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최대 유입량은 초당 약 4,400톤이었고 최대 방류량은 초당 1,000톤이었다. 초당 1,000톤은 하류지역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방류량으로, 홍수조절율은 77.3%나 된다. 만약 상류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그대로 하류로 흘러갔더라면, 규암지점의 수위는 경계수위 7.5m를 훨씬 넘어 8.7m 정도까지 높아졌겠지만, 대청댐의 효율적인 홍수 조절로 1.7m 정도 낮추어 공주, 부여, 강경 등 하류지역의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댐의 홍수조절능력에 대한 의견은 있을지 모르나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수해의 본질적인 예방책도 다목적댐에 있다는 사실도 새삼 일깨워 주었다. 다목적댐은 전국에 15개가 있지만 효율적인 홍수 대비에는 한계가 있다.

유엔개발기구(UNDP)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홍수위험지수는 6.85로서 0점대인 영국, 독일, 스위스나 2.28인 미국, 2.81인 일본보다도 월등히 높다. 홍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강도 높은 홍수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몇년의 경험으로 봐도 다목적댐만으로도 홍수 피해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요즘처럼 기후 온난화에 따라 기상이변이 빈번하고 예측이 어려운 기상환경속에서,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독특한 환경에서는 댐 건설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2. 댐 건설만이 능사인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하여 댐 건설에 대한 재논란에 대한 언론보도 중 댐 건설 반대론을 대표하는 주된 내용 중에는 댐의 홍수조절능력은 인정하되, 홍수 피해로 문제가 된 지역들이 단순히 댐이 없기 때문이었던지 하는 문제와 댐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가 사회·환경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물론 하천생태의 문제와 지역간 갈등문제 등 댐 건설 찬반 논란의 가장 일반적인 소재들까지 포함해서 말이

다. 다목적댐은 잠재적인 물 폭탄이며 그 자체가 커다란 위협이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논리일 뿐"이라는 환경단체의 일관된 논리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중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논리 중의 하나는 댐 건설은 자연파괴와 기후변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댐 건설만이 1차적인 대안이 아니며, 만약 필요하다면 과학적이고 정밀한 검증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댐 건설로 갈 것이 아니라, 물 절약을 1차적으로 모색하고 그 다음 댐 건설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댐이 우선이 아니라, 하천관리와 방재의 노력이 먼저라는 것이다. 댐 건설비용에 해당되는 만큼의 예산을 하천관리와 제방관리 등의 치수예방에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은 댐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다. 습지가 아니었던 곳이 저수지 형태로 바뀌어 기후와 환경이 달라지므로 기존의 생물 서식종이 변하고, 흐르는 물에 사는 어류의 서식지도 파괴되고, 연어 등 회귀성 어류의 이동도 차단되며,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는 역사·문화·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이 수몰되어 원래 상태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동강댐 백지화 과정에서 줄곧 찬반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일반적인 사항들이고, 전자의 경우는 우리나라 치수정책의 대안은 결국 댐 건설뿐이라는 명제에 대하여 과연 댐 건설만이 능사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주장이다.

과연 댐 건설만이 능사인가? 참으로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흐르는 물의 순리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하는 철학적 번민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댐 건설의 당위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사다운 능사는 과연 무엇인가? 정부 관계자, 환경단체 그리고 상·하류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 해결책은 없는가?

3. 무엇이 대안인가?

위에서 댐을 중심으로 한 수자원 관리와 과연 댐 건

설만이 능사인가하는 이야기들을 짚어 봤다. 동강댐 백지화 이후 모두가 지난 몇년 동안 수 없이 반복되었던 댐 건설과 관련한 진부한 이야기꺼리일 수도 있다.

지금부터는 수자원의 개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대안으로써 친환경적 논리에 부응하면서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가치인식과 공유를 위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댐 건설과 관련한 대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댐 건설에 찬성하면 개발론자, 반대하면 환경론자로 구분되어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 해 왔다. 홍수피해의 주요 원인 분석에서 보듯이 상대방의 주장이 결국 홍수 피해의 원인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극단적 논리속에 지난 1996년에 착공한 장흥댐(구 탐진댐) 이후로 10여년간 댐 건설을 하나도 추진하지 못했다고 하니 과연 대안이 무엇이고, 해마다 겪는 수해 당사자와 환경보전을 지키려는 이들의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최근 국내 댐 건설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댐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착공도 못하고 있는 저수용량 1억톤 이상의 다목적댐이 한탄강댐과 강원도 영월댐, 경남 문정댐 등 3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탄강댐은 임진강 유역에서 1996년, 1998년, 1999년 3년 내리 물난리가 나서 230명이 숨졌고, 1조 6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뒤 정부가 댐 건설을 결정하여 댐건설사업자까지 선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7월 16일에는 한탄강에 댐을 지어달라는 파주시민들의 서명운동이 있었다.

문산, 파주 지역은 배수 펌프장을 확충하고, 제방을 쌓고, 하천바닥을 넓히는 등 수방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상류인 한탄강과 임진강에 댐이 단 한 개도 없어 홍수에는 매우 취약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로 인한

표 1. 홍수 피해 주요 원인

개발론자	환경론자
- 10년간 댐 건설 전무	- 난개발
- 환경단체 반발	- 복잡한 물관리 시스템
- 댐외의 효과적인 수방대책 없음	- 분산된 수방 행정
- 홍수관리 시스템 부재	- 장마철 공사장 부실관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 곳이다. 특히 이번 수해를 통해서 한강 수계를 비롯한 낙동강, 금강 유역에서의 한계치에 근접한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치수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댐 건설의 타당성도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생태계 파괴논란과 댐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댐 건설의 반대를 이끌었던 환경단체들과의 논의도 과거보다 다른 형태로 바뀌어지는 듯하다. 우리나라 치수대책의 근간을 댐으로 본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많은 선진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댐의 입지와 규모와 역할과 유형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와 대체생태계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할 때이다. 지난 10년간 단 하나의 다목적댐도 만들지 않은 정부의 치수정책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고, 다목적 댐 건설과 난개발 방지라는 두가지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과 보존의 극단의 현상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통영역이라도 찾아서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 일이다.

댐 건설은 건설예정지역 지정 이후 댐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며, 이후 타당성 조사 실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시공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환경성 문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대안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 등 법과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이론적인 완성과 기술적인 적용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입지의 중요성

댐의 건설은 경관생태적 연결성의 단절에 따른 새롭게 변화된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아무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과정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환경의 훼손과 파괴는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입지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보다 광역적인 범위에서의 생태적 변화의 이

해와 더불어 생태적 가치의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절한 대안의 선택 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법적 보호종의 보전·복원 프로그램의 이행은 입지적 대안과 가치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 관계자와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2) 생태계 영향의 정확한 진단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대체서식 공간 마련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불가피하다. 댐이 건설되면 하천 생태계가 호소 생태계로 변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에 서식하던 생물종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든지 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고, 새롭게 형성되는 호소 생태계에는 호소 생태계에 맞는 새로운 종들이 들어오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아직 이런 생태계 변화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축적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자연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술이 필요한데 하나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분석의 기술이고, 또 하나는 개발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보전의 기술이다. 두 가지의 기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의 전제이자 해법 그 자체이다.

댐 건설 전의 해당 구역에 대한 동·식물 서식처 등 자연환경의 정확한 조사와 도식화(현존식생, 생태자연도 등)를 통한 계량적 평가자료를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 하며, 댐 건설과정의 환경성 문제를 다룰 때에도 유사한 등급의 복원지표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순히 이질적 생태계 변화(하천 생태계→호소 생태계)상의 종다양성만을 평가하기보다는 개발 이전의 사전 환경성 조사에서의 각 공간별, 서식처별 평가기준을 두어 명확히 조사·평가 후 댐 건설과정에서의 환경보전 및 복원계획에서 훼손된 정량적 가치만큼 대체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건강한 하천생태의 다양한 생물서식공간과 비슷한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댐 저수지 상류의 저습지를 조성·관리하여 건전한 종의 공급원 역할을 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의 이용성을 감안한 학습시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역생태계의 보고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습지생태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내에는 장흥댐과 대곡댐 상류에 유사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유역에서 유입되는 주요 수로에 식생을 이용한 정화습지를 조성해 놓은 예이다. 규모는 작지만 물세를 포함하여 많은 저서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기존의 각 댐들도 여러 가지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댐 주변의 생태적 건전성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고 본다.

댐 건설로 인해 새롭게 생성된 호소생태계에는 호소생태계만의 다양성이 있는데, 호소생태계에 서식하는 민물 어종을 비롯하여 각종 조류의 서식처 등 국내·외 좋은 문헌과 자료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강댐의 경우, 저수지 수변부에서 수달의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수달이 사라져 수달의 복원이 국가적 목표로 설정할 만큼 수달 서식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남강댐에 수달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생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환경문제의 주요한 지표로 다루어지고 있는 수달이 살 수 있는 최적공간을 댐 호소 생태계가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은 댐의 부정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한다.

댐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적극적으로 보전·복원하도록 함과 동시에 새롭게 창출되는 생태적 자원의 활용과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인 댐

환경친화적 댐 건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시행을 위한 지침을 수립한지 수년이 지났다. 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법제화되고 제도화하였고, 기술적인 기준들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댐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댐 건설중에 지급되는 정비사업비로 기초금액 300억원이 지급되고,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물세대 및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가금액이 지급되며, 건설 이후 댐 주변 지원 사업비로 연간 수익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적으로는 환경친화적 댐 건설 기준, 환경친화적 조정설계 기준, 야생동물 서식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 방안 등 수많은 기준과 자료를 만들어 새로운 건설환경에 대비하고 있다.

법적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댐 주변의 공간이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주변의 관광권과 연계된 다양한 환경친화적 공간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 5월에 준공한 장흥댐의 사례를 보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댐 유역과 주변 지역의 관광권을 거점별로 설정하고 지역 네트워크로 묶어서 장흥군의 관광요소와 연계하여 관광지구 개발모델을 수립하였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성 복원을 위해 어도와 어류산란장을 만들었고, 특히, 댐 본체에는 건설로 인해 단절된 산림생태계 연결을 위해 생태적 녹화를 시행하였다(제5회 생태조경녹화대상수상). 댐 본체의 생태적 녹화는 주변지역의 식생을 재현하기 위해 우선 수물지내에 있는 수목 중에서 이식이 가능한 수종을 이식하고, 이식이 곤란한 수종은 종자 채취, 삼목 등을 통한 포트묘 재배를 하여 식재하였으며, 특히 대경목의 그루터기 이식은 새로운 시도로서 식재 모델 개발에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상류의 수질 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과 추구장과 테니스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공간조성에도 배려하고 있다.

III. 맺는말

물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댐의 건설에 있어 댐 건설 당위론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반대론의 문제는 앞으로도 전문가적인 대안의 모색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를 경계하면서도, 환경생태학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수자원전문가로서의 견해가 있고, 환경보호론자로서의 논리가 있는 것이다. 각자의 역할 속에 해법이 있고, 대안이 있다고 본다. 환경문제를 각자의 분야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

문역량을 총동원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예상되는 훼손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생태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잘 점검하여물관리 관계자나 환경·시민 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무엇이 진정한 시대적 대안인지 그 해법의 중심에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감히 이야기 하고 싶다.